

# 세상에 하나뿐인 위대한 어머니당

얼마전 조선로동당은 일흔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이날을 맞으며 공장 농촌, 어촌을 비롯하여 이 땅 어디서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축공연, 경축무도회, 체육대회를 열고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자기의 진정한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이것은 해가 갈수록, 년월이 깊어갈수록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음을 말해준다.

하다면 조선로동당이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위용될지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기때문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올해 3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인민의 리상거리가 일떠서고있는 화성지구에 나가서 력사적인 기념식수를 하시었다.

그날은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알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호소와 장쾌한 착공의 발파축음소리가 울린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식수절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기념식수의 첫삽을 드시였을뿐 아니라 친히 집나무가 담겨있는 들보의 앞채를 드시고 구멍이 있는 곳까지 날라오시여 정성다해 나무를 심시었다.

바로 이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으신것은 단지 두그루의 전나무만이 아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튼튼히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여기에는 전당의 초급당비서들이 당의 인민사랑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그 길에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진정한 어머니당일군으로 살며 일해나가기를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집권당이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민이라는 거대한 토양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오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우고 나중에는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위가 잘 말해주고있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깊어지는것이 아니다.

당이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고 편의와 리익을 옹호하며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 때야 인민의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잡고 위용될지는 불패의 당으로 되게 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탁월한 수령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인민의 운명의 보호자, 향도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시기부터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이 사업에 선차적 힘을 부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인위천의 리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마치와 낮과 밤이 새겨진 조선로동당의 마크는 세계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어머니당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당을 명실공히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

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철학인 주체사상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창시하시었고 조선로동당이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도 그이께서 마련하신것이다.

수령님의 당건설위업과 업적을 순결하게 계승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오고 혁명도 시작한다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것을 자신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시었다. 그이께서 인민은 가장 숭배하는 하느님이었다. 제일 힘있는 존재도 인민,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도 인민이었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었다.

나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나는 그늘 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며 한생

을 초탈처럼 태우신 그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대한 헌신의 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당도 위대하고 당이 정치를 잘하면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것이 이 땅의 현실이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사상과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나온 10여년간은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힘겨운 시련과 난관의련속이었다.

이 나날 인민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조선로동당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모진 시련속에서도 외로움을 몰랐고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힘든 줄 몰랐다.

제난을 당한 인민들은 군당위원회청사에서, 당일군들

은 천막에서 지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당력사의 갈피에도 새겨진적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며 고난을 겪는 지방의 인민들에게 수도의 따뜻한 숨결을 이어준 미더운 수도당원사단의 투쟁이야기, 악성전염병류입이라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염병치료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약품들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환자들과 어렵고 힘든 세대들을 도와나섰던 이 땅의 아름다운 화복은 끈난을 겪을 때일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고락을 함께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본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힘들고 어려운 매일이속, 생사를 내야 하는 위급한 순간일수록 인민을 더 뜨겁게, 더 힘껏 품어안고 진함없는 사랑과 정을 다 기울이는 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이다.

바로 조선로동당을 이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시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 그이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숭고한 리념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이나 정책을 세워도, 하나의 창조물을 만들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도록 하시며 인민의 편의도모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신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든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적이고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는데 지향되고 현실로 구현되고있는것이다.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문화도시로 삼지연시가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펼쳐고 걸척지구에 사회주의 새 선경인 신안협곡도시가 일떠서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사

회주의문명이 융성된 리명거리, 창천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룡라인민유원지, 류경린,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류경치과병원, 옥류야동병원, 은정차음료공장 등이 땅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인민의 리상향, 조선특유의 창조물들과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들은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뜨겁게 어려 있다.

얼마전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완결고착시킨것은 인민의 자주적언명과 존엄,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랑과 헌신의 최고발현이다.

돈으로도 살수 없고 강요로도 얻을수 없는것이 민심이다. 수백년을 헤아리는 세계정당들의 력사를 살펴보면 근로대중을 위한다며 활동한 당들이 수없이 많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의 남녀로소로부터 어머니당으로 칭송받은 당은 어제도 없었고 오늘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조선에서 당은 언제나 인민 곁에 있다.

인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다정하게 변함없이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인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후더운 숨결이고 심장의 박동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삼고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되고 신속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광명함 미레만이 펼쳐져있다는것을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다시금 굳게 확신하는 공화국인민들이다.

박경원



10월이다. 어머니당이 또 한차례 자기의 뜻깊은 생일을 맞이 이 영광의 10월과 함께 우리 집에도 하나의 경사가 있다. 련포은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나의 아버지가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수필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하는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세계곳곳의 대규모은실농장건설을 몸소 주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착공의 첫삽을 드신 그 날로부터 불과 몇달.

오늘 이처럼 최환한 별천지 련포은실농장을 사랑의 선물, 변영의 제부로 인민에게 안겨주시고도 이 모든것은 오직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나의 아버지를 비롯한 군인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우리 가정의 기념사진들은 우리라는 나의 가슴에는 이름할수 없는 감격이 차오른다.

10년전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먼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아직은 사랑을 받을출발에 모르는 나이, 고마움을 느끼기에 키도 마음도 너무나 작았던 열한살첫부터 이 나와 내포에 아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원수님곁에 섰을 때 우리 가정,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겹게 불러주시며

앞날의 강성조전은 동무들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원수님의 축복을 영원한 화복으로 새긴 그대로부터 우리 집의 경사는 날로 늘어만 갔다.

몇년전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할아버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대를 두고

## 제일 큰 사진첩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던것이다.

로병동지들이 곁에 앉아만 계셔도 힘이 된다고, 앞으로 무병무탈해서 로당위원장이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송고한것을 드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위대한 전승세대 영광의 단상에 빛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간직할 숭고한 도덕의리의 귀감이 할아버지가 받아안은 기념사진에 새겨져있다.

그런데 오늘은 군관인 아버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으니 우리 집은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집에만 차려진 행복만이 아니다. 저 멀리 외진 장재도의 항명이네 가정에도, 수령결사옹위의 비행운을 새겨가는 충도네 집에 오직 못할 사랑의 기념사진이 있다.

피아화가의 그림솜씨도 보아주시며 아버지의 축복을 남긴 창천거리 그 집에도, 근로하는 인민의 행복 끝없는 경부동과 다수학생민, 영웅직포공, 교육자, 과학자, 세포비서, 어로공 등이 사는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온 나라 가정들에 모신 기념사진들이 다 담긴 원수님의 사진첩은 얼마나 부피가 두터울것인가.

아마 그 사진첩의 갈피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속에 착박박있는 인민의 정겨운 모습들이 새겨져있을것이다.

동무들이 보고싶을 때마다 펼쳐보셨다시던 갈나무초소의 녀성군인들도 그 뜻깊은 사진첩에 있고 세상애 부

해 사랑의 러정,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고계신다. 인민들은 태양의 존안이 모서진 불멸의 화복들을 심장에 새기고 보답과 충정의 열의를 불태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첩에 간직되어있는 우리 집의 기념사진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웨치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의 품을해야 풀을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과 정이 가득 담긴 불멸의 화복들이 수록되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첩, 그것은 정녕 자애로운 어머니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회주의대가정의 제일 큰 《가족사진첩》이라고.

본사기자 박진홍

## 여기서 꽃피고 주렁지여관

리 송 일

하늘의 은하수 통채로 내렸는가 동해기슭 드넓은 련포지구에 가없이 펼쳐진 눈부신 은빛세계 불수록 황홀해라 련포의 보배농장이여

비린 바다바람만이 스치던 이 땅에 풍겨오는 남새향기 청신도 하오 이 어린 천지개벽인가 어서 보자 동해의 파도도 같이 쳐들어 끝없이 이곳으로 달려오는듯

어느곳이더냐 한겨울의 찬바람이 모래를 말아올리던 허허벌판 이곳에 찾아오시여 하나하나 건설방도 가르쳐주시며 우리 원수님 오래도록 서계시던 곳이

그이 서계시던 그곳에 그이 그려보신 남새바다 펼쳐졌구나 몸소 착공의 첫삽 드시고 발파단추 누르셨던 그 자리에 한쪽의 명화처럼 선경마를 일떠섰구나

입맛 잃으면 《남새일리》라며 남새를 귀로도 여기던 합남평인민들 이제는 사철 신선한 남새 받아안게 되리랴

그것이 너무나 기쁘시여 완공의 그날 원수님은 그러도 환히 웃으셨나니

두손에 받아드신 그 열매는 그대로 인민이 받아안은 행복의 열매

남새채에조차 남새가 바르던 합남 땅이 이제는 온 나라에 남새자랑을 하게 되었으니

볼수록 놀라워라 동해의 푸른 바다도 무색케 할 남새바다 펼쳐질 련포의 새 모습이어

아, 인민을 위하시는 원수님 사랑 그 사랑이 떠올린 련포은실농장 여기서 인민이 누리는

복락의 웃음이 활짝 꽃피어라 여기서 만복의 열매 주렁지여

## 사랑글아 서여죽신 이름들 《민들레 학습장공장》

공화국사람들은 민들레라 하면 제일먼저 《민들레》 학습장을 떠올린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사랑하는 《민들레》 학습장과 민들레학습장공장이자.

이 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학습장생산 기지로서 전국의 유치원으로 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땅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주체104(2015)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습장공장건설을 발기하시었고 그후 형성안도 지도해주

시였을뿐만 아니라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셨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불아오려고 책동하여도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머리에 펼쳐진 민들레 홀날리는 조국의 맑은 하늘을 가리울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견본으로 생산한 학습장들을 보아주시고 학습장의 갈래에 몸소 《지덕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세상에 부럽없어라!》를 비롯한 뜻깊



은 친필들도 남기시었다. 원수님께서 공장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새로 건설되었을 때에는 몸소 찾아오시여 자신께서는 민들레 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여 정말 기뻐하셨고, 질 좋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후 뜻깊은 국제야동절을 맞으며 혁명학원, 초등학원, 중등학교, 애육원들과 장재도, 무도를 비롯한 섬소학교 학생들과 원아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멋진 학습장들이 가슴가득 안겨졌다.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북부해지역에 세인트, 강재보다 《민들레》 학습장이 먼저 가닿아 아이들을 기쁘게 했다.

공화국의 학생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시신 사랑의 하늘이런들 《민들레》 학습장에 지식의 금자탑을 새겨가며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는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둥이들이다. 본사기자 리경월